

Codex 기반 업무 문서 제작 워크플로

보고서·카드뉴스·PPT·1분 숏폼 초안을 하나의 기준 원고
에서 설계하는 실전 방법

성과 측정: 실제 작업 구간 합산 2시간 36분 34초



실제 산출물

한 번 만든 기준 원고를 4종 산출물로 확장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논리를 세우고, 같은 핵심 메시지를 카드뉴스·발표자료·숏폼으로 재가공했습니다.

보고서 DOCX

발표용 PPTX

카드뉴스

1분 숏폼



자료는 흩어지고, 형식은 계속 바뀝니다

같은 내용을 보고서, 카드뉴스, 발표자료, 영상 대본으로 다시 옮기다 보면 문장과 기준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핵심은 숫자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업무 흐름을 줄이는 것입니다.

01 자료 찾기

공모전 안내·기준·원고 위치 확인

02 문장 바꾸기

긴 글을 발표·카드뉴스 문장으로 변환

03 다시 검토

숫자, 조건, 책임 표현을 사람 눈으로 확인

04 파일 정리

최종 산출물과 근거 파일을 한 폴더에 보관

Codex는 한 폴더의 자료를 읽고 초안을 정리해 주는 AI 작업 도우미입니다

어려운 기술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법입니다. 기존 문서와
참고자료를 한곳에 두고, 어떤 산출물이 필요한지 말하면 검토
가능한 초안을 만듭니다.

자료를 모은다

Codex에 요청한다

초안을 받는다

사람이 확인한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4단계 워크플로

1

자료 모으기

공모전 안내, 디자인 기준, 기준 원고를 한 폴더에 정리

2

기준 세우기

문체, 금지사항, 성과 수치 기준을 먼저 확정

3

플랜 모드

참고 파일과 작업 순서를 확인한 뒤 실행

4

사람 검토

숫자, 사실, 개인정보, 제출 조건을 최종 확인

플랜 모드는 바로 만들기 전에 참고 파일, 순서, 검토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보고서에서 논리를 세우고 다른 형식으로 바꿉니다

보고서



카드뉴스



PPT



숏폼

같은 기준을 공유하므로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고, 수정도 한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

Codex의 VS Code 기능으로 업무 파일을 미리 보며 탐색·정리 시간을 줄입니다

Markdown 원고는 바로 미리보기로 읽고, PDF·Word·PPT는 확장 기능이나 외부 앱 연동으로 확인합니다. 핵심은 파일 위치와 역할을 한 작업공간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Markdown 미리보기

파일 검색

산출물 위치 확인



성과 수치는 작업한 시간만 합산했습니다

2시간 36분 34초

확인 가능한 누적 작업 시간

4종

보고서·PPT·카드뉴스·샷폼

약 39분 9초

초안 1종당 평균 작업 시간

주의: 기존 수작업 비교값이 없으므로 '몇 % 단축'은 쓰지 않습니다.

확산 가능성

특정 직무가 아니라 문서 업무가 있는 곳이면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 건설, 소상공인,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학생, 프리랜서까지 적용 지점은 다르지만 흐름은 같습니다.

금융

건설

소상공인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학생

프리랜서



AI는 초안을 돕는 수단이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01 사실

공모전 조건, 일정, 파일 형식 확인

02 숫자

성과 수치와 근거 파일 일치 확인

03 개인정보

실명, 회사명, 내부자료 노출 방지

04 저작권

이미지와 문구의 사용 가능성 확인

공모전 제출 전에는 사람이 마지막 검토자입니다.

쉽게 시작하고, 사람이 책임지는 AI 업무 활용 기본기

Codex는 복잡한 자동화보다 먼저, 흩어진 자료를 정리하고 초안을 빠르게 확인하는 실전 도구로 설명할 때 전국민 확산 가능성이 커집니다.

총 작업 시간 2시간 36분 34초 · 산출물 4종